

묘쇼지 절

니치렌종(日蓮宗)의 작은 사찰인 묘쇼지 절은 긴잔초(은광 마을)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긴잔(은광)강 주변의 산책로를 마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1514년에 지어진 이 사찰의 주된 신도는 이와미 은광의 상공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승뿐 아니라 저승에서도 정신적, 물질적 구원을 구할 것을 장려하는 니치렌종의 가르침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묘쇼지 절이 수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 모았다는 사실은 산속에 자리한 커다란 묘지에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날짜가 새겨진 묘석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찰과 묘지 주변 모두를 완전히 황폐화했던 1943년의 홍수와 잦은 산사태로 절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후에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사찰 건물 앞에 자리한 현대적인 작은 묘지에 극히 일부분의 묘석만이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나무와 언덕의 덩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